

## ■ 이매방 명인 등 한국 무용가들 잇따라 별세

‘한국춤의 거목’ 우봉(宇峰) 이매방 명인이 8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1927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이 명인은 생존 예술가 중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등 두 분야의 예능보유자였다. 7세 때 목포 권번(기생들의 조합) 장의 권유로 권번학교에 들어가 춤을 배우기 시작해 80년 넘게 전통춤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인물이다.

이대조, 이창조 선생 등으로부터 승무와 북놀이, 검무 등 춤의 기본기를 익히고 5년간 중국에 살면서 전설적인 무용가인 매난방에게서 칼춤과 등불춤을 배웠다.

한국무용가 지희영씨도 8월 17일 서울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1949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지 씨는 최승희를 잇는 신무용을 고집해온 남성무용가다.

지 씨는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 무용과에 들어갔다가 최승희의 춤을 배우기 위해 그의 수제자인 ‘한국 신무용의 대모’ 김백봉(경희대 명예교수)의 문하로 옮겨 경희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여성 스승을 사사했지만, 남성적인 힘을 보태 강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춤사위를 만들어냈다.

## 영화

### ■ 개요

2015년은 한국영화계가 같은 달 ‘쌍천만 영화’라는 진기록을 달성한 한해였다. 한국영화는 4년째 관객 1억 명대를 유지하며 관객몰이를 이어갔으나, 한해를 상·하반기로 나눠보면 온도차가 컸다.

상반기에는 역대 외화 중 최단기간 1천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수립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 2)을 비롯해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주라기 월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등 외화가 극장가를 지배했다.

여름 들어서부터 한국영화의 반격이 시작됐다. ‘암살’과 ‘베테랑’이 연이어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하며 ‘쌍천만’ 시대를 열었다. 하반기에도 ‘사도’, ‘탐정: 더 비기닝’, ‘검은 사제들’, ‘내부자들’ 등 한국 영화의 강세가 이어졌다.

홍상수 감독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비롯한 국내 다양성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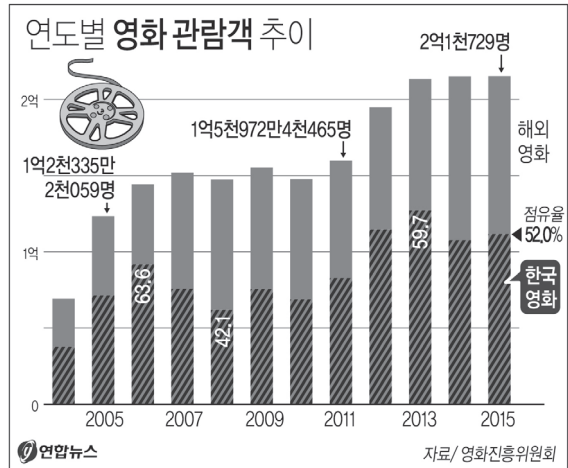
영화계에서는 각종 표준계약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중국 자본과의 합작도 각각도로 추진됐다. 영화계의 ‘큰 별’들이 지는 곳은 소식도 있었다.

### ■ 영화 관객수 역대 최다·매출액도 사상 최대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5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액은 2조1천131억원으로, 종전 최대였던 2014년 매출액(2조276억원)보다 1.0% 증가했다.

영화산업 매출은 2010년부터 6년째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 수(2억1천729명)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영향이 가장 크다. 인구 1명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4.22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영화가 전체 영화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영화의 관객 수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1억1천293만 명(관객 점유율 52.0%), 외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1억436만 명(점유율 48.0%)이었다. 박스오피스 10위 안에는 한국영화 6편이 포진했다.



IPTV, 인터넷 VOD 등 디지털·온라인 부가시장 규모도 2014년보다 12.7% 늘어난 3천349억원으로 집계됐다. IPTV 시장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15.7% 증가하면서 전체 부가시장 매출의 78%를 차지했다. 2014년 매출액이 감소했던 인터넷 VOD 시장은 16.7%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영화 수출실적은 5천550만 달러(약 674억원)로 전년보다 12% 하락했다. 영화 완성작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2천937만 달러(약 357억원)로, 전년보다 11.3% 상승했다. 한국영화 수출 편수는 전년보다 12편 늘어난 650편으로 집계됐다. 평균 수출가는 편당 2만5천882달러(약 3천143만원)였다.

### ■ 한국영화 같은 달 ‘쌍천만 시대’ 개막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 ‘암살’(1천270만 명)이 광복절 70주년에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개봉 25일째의 일이었다. 2015년 개봉한 한국영화 중 처음으로 관객 1천만 명 고지에 오른 영화였다. 역대 한국영화로는 12번째이고, 외화까지 포함하면 16번째다.

정확히 2주 뒤에 류승완 감독의 액션영화 ‘베테랑’(1천341만 명) 역시 관객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서었다. ‘베테랑’은 8월 5일 개봉한 이후 9월 2일까지 29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해 가장 오랫동안 정상을 고수하기도 했다.

같은 해 개봉한 두 영화가 관객 1천만 명을 넘어서는 적이 있었지만 같은 달에 두 영화가 나란히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흥행순위로 ‘베테랑’은 4위, ‘암살’은 8위에 올랐다.

8월이 영화시장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경쟁작이 같은 시기

에 1천만 고지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어서 '쌍천만 영화'란 용어가 인구에 회자됐다.

2012년 8월에 '도둑들'(1천298만 명), 10월에 '광해, 왕이 된 남자'(1천232만 명)가 관객 1천만 명 이상을 끌어 모아 처음으로 한국영화 쌍천만 시대를 연 바 있다.

여름철 한국영화의 열기는 상반기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상반기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42.5%로, 2008년 37.1%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하지만 7월 들어 '연평해전'(604만 명)이 예열한 한국 영화의 흥행 열기는 '암살'과 '베테랑'을 거쳐 '사도'(625만 명), '탐정: 더 비기닝'(263만 명), '검은사제들'(544만 명), '내부자들'(705만 명)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영화는 11월 30일에 4년 연속 관객 1억 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 ■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상반기 국내 영화시장 강타

2015년 상반기 한국영화가 부진한 사이 외화가 극장가를 주름잡았다.

첫 강타자는 '킹스맨'(613만 명)이었다. 2월 11일 개봉한 이래 박스오피스에서 줄곧 1~2위를 기록하며 관객몰이를 이어갔다. 그달 28일에는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외화 중 최고 흥행작인 '300'(2007년 · 292만)의 기록을 8년 만에 경신했다.

'킹스맨'은 '친구'(2001년 · 818만 명), '내부자들'(705만 명), '타짜'(2006년 · 685만 명), '아저씨'(2010년 · 628만 명)에 이어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흥행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외화의 흥행 열기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천49만 명)이 이어갔다. 개봉 25일 만인 5월 17일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2015년 개봉작 중 처음이었다. 역대 외화로는 '아바타'(2009년 · 1천362만 명), '겨울왕국'(2014년 · 1천30만 명), '인터스텔라'(2014년 · 1천28만 명)에 이어 네 번째로 1천만 고지에 올랐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역대 영화 첫 사전 예매량 100만장 돌파, 역대 외화 박스오피스 평일 최고 오프닝(관객 62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를 입증하듯 관객 100만 명 돌파부터 1천만 명 돌파까지 매년 '역대 외화 중 최단기간'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국



▲ 4월 23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3.3m 크기의 대형 '아이언맨 헬크로스스타'와 영화 어벤져스 캐릭터 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의 팝업 쇼케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내 전체 스크린 2천400여 개 중 1천840개를 차지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613만 명), '주라기 공원'의 속편인 '주라기 월드'(555만 명),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497만 명), SF 흥행 대작 '마션'(488만 명) 등도 외화 강세를 이끌었다.

조지 밀러 감독이 30년 만에 내놓은 '매드 맥스' 시리즈 신작인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384만 명)는 관객과 평단을 모두 만족시켰고,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인턴'(361만 명)은 블록버스터가 아님에도 입소문에 힘입어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 ■ '위플래쉬'가 다양성 영화 흥행 '나홀로' 주도

'위플래쉬'(159만 명)가 이른바 '아트버스터'(아트+블록버스터) 명맥을 이어가며 다양성 영화의 열기를 주도했다.

'위플래쉬'는 천재 드러머를 꿈꾸는 학생 앤드루(마이클 텔러)와 최고의 실력자이자 폭군인 플레처 교수(J.K 시몬스)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두 사람의 광기가 폭주하면서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과 전율을 선사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3월 12일에 개봉한 '위플래쉬'는 입소문을 타고 박스오피스를 역주행하다니 결국 그달 20일에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다양성 영화로 전년에 개봉해 흥행열기를 이어 온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96만 명)가 흥행 2위를 기록했다. 전년 개봉작이므로 사실상 다양성 영화의 흥행은 '위플래쉬'가 홀로 이끈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큰 흥행작은 없는 편이었다. 2014년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385만 명)와 '비긴 어게인'(343만 명)이 블록버스터 못지않은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전체 다양성 영화 관객 수는 2014년 700만 명에서 2015년 671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관객 10만 명 이상 동원한 다양성 영화들이 많은 덕분이다.

한국 다양성 영화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26만 명)이 평단의 호평과 함께 관객들의 많은 선택도 받았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 제작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인 '소셜포비아'(20만 명)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4만 명)도 주목을 받았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억척스러운 생활의 달인 '수남' 역을 연기한 이정현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임권택 감독의 '화장'(14만 명),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8만 명) 등 거장 감독들도 신작을 선보였다.

다양성 영화시장에서 재개봉 열기도 불었다. 개봉 10주년을 기념해 재개봉한 '이타ernal 선사인'은 관객 32만 명을 끌어 모아 개봉 당시 관객 수(17만 명)를 훌쩍 뛰어넘는 진기록을 보여줬다. 또 역대 재개봉 영화 중 '타이타닉'(37만 명) 다음으로 많은 관객 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타이타닉'이 전국 스크린 300여 개에서 상영된 반면 '이타ernal 선사인'은 스크린 수가 100여 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타ernal 선사인'이 세운 재개봉 기록이 '타이타닉'에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

'이타ernal 선사인'의 선전에 힘입어 '렛 미 인',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러브 액츄얼리' 등의 재개봉 바람이 불기도 했다.

## ■ 국내 영화 해외 영화제서 잇따른 쾌거

홍상수 감독의 17번째 장편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제68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한국영화로 배용근 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 8월 15일(현지시간) 제68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국제경쟁부문 대상인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홍 감독은 제66회 때 영화 '우리 선희'(2013)로 같은 부문에 초청돼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바 있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는 베를린·칸·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유럽에서 권위 있는 영화제로 꼽힌다.

이 영화의 남자 주연을 맡은 배우 정재영은 이번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 배우의 남우주연상 수상은 정재영이 처음이다. 정재영은 또한 제9회 아시아태평양영화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박정범 감독이 4년 만에 메가폰을 잡고 주연 배우로도 활약한 '산다'가 같은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심사위원특별상은 영화제의 10개 경쟁부문 가운데 하나다.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제21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다.

독립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제16회 아시아티카영화제에서 최우수극영화상을 받았다.

6월 11일 개봉한 이 영화는 관객 3만5천 명을 모으며 손익분기점(3만 명)을 넘는 흥행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아시아티카영화제(Asiatica Film Mediale)는 아시아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로, 2000년부터 매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고 있다.

영화 '마돈나'가 제35회 하와이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할레쿨라니 황금 난초상'을 받았다. 이번 영화제는 '마돈나'와 '사도'를 비롯, '오피스', '암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소수의견', '베테랑', '미쓰 와이프' 등 다수의 한국영화를 초청했다.

## ■ 국내 영화계 해외 진출...표준계약서 자리 잡아

영화 투자·배급사인 뉴(NEW)가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첫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뉴는 2014년 536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던 화책미디어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웹툰작가 강풀의 '마녀'를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영화화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업체인 CGV는 중국 최대 업체인 완다시네마와 다면상영시스템인 '스크린X' 확산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화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표준연출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가 연이어 마련돼 2015년 영화계에서도 각종 표준계약서를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임상수 감독의 부친이자 원로 영화평론가인 임 영(87) 씨, 원로 영화감독 심우섭(88) 씨, 1970년대 충무로 춘추시대의 대표 여배우 진도희(66) 씨, 촬영감독의 대부 서정민(81) 씨 등 한국 영화계의 '큰별'들이 지기도 했다.

## 종교

### ■ 개요

종교계는 2015년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남북의 종교 대표자들이 빈번하게 만나 민족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불교계와 천주교계는 잇따라 북한을 방문해 민족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모색했다.

조계종과 천태종은 각각 금강산 신기사와 개성 영통사에서 대규모 법회를 봉행했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추진특별위원회는 북한을 방문해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여 종단의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찾는 대중공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으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감형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또 조계종은 안팎의 비난 속에서도 조계사에 은신한 한 상군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해 자진 출두를 이끌어냈다.

개신교계는 선교 130주년, 대한성공회는 선교 1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 손희송 신부가 주교가 되면서 주교가 3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종교인 과세는 47년 만에 입법 확대 2018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 ■ 남북 종교인들, 민족화해와 교류 추진에 박차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이 회원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1월 9일 2011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을 찾아 북한 종교인을 만났다.

남한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스스님) 회원 150명과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협회장 강지영) 회원 50명은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남북 종교인들은 "일촉즉발의 교전 직전까지 치달던 긴장 상태가 극적인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며 "남북 종교인들이 찾은 교류를 통해 자주적인 통일 운동을 추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